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2011년 4월 2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유연백 석유산업과장, 최세나 사무관(2110-5458)	

"국내가격 상승으로 휘발유 소비량 감소"

2010년 4분기 대비 가격 8.3%↑, 일평균 소비량 4.7%↓

- 2011년 1분기 원유 및 석유제품 수급실적 분석 -

< 2011년 1분기 석유수급 총괄표 >

(단위 : 물량(천b), 금액(백만불))

구 분		11.1분기	10.4분기	10.1분기	전기비(%)	전년동기비(%)
원유 수입	물량	235,095	231,507	207,534	1.5	13.3
	금액	22,956	19,025	16,013	20.7	43.4
제품 수요(내수+수출)		307,403	317,383	281,892	△3.1	9.0
국내 소비(내수)		204,963	210,144	198,834	△2.5	3.1
수 출	물량	102,440	107,239	83,058	△4.5	23.3
	금액	11,415	9,884	6,873	15.5	66.1
제품 공급(생산+수입)		316,016	316,291	298,335	△0.1	5.9
국내 생산		242,453	249,915	224,871	△3.0	7.8
수 입	물량	73,563	66,376	73,464	10.8	0.1
	금액	6,698	5,136	5,557	30.4	20.5

* 국내소비(내수) : 최종 소비가 아닌, 정유사 공급기준
* 수출 : 수출과 국제벙커링의 합
* 국제벙커링 : 외국적 외항 선박 및 항공기에 직접 급유하는 것으로 직수출과 구분

□ 지난해 말 이후, **국내 휘발유 가격의 상승폭이 커지고, 자동차 5부제의 이행·강화(2월)**에 따라, 금년 **1분기 휘발유 소비량(주유소 판매량)이 감소 추세**를 보이는 바, **자가용 사용이 고유가** 및 **5부제 시행에 영향**을 받는 것으로 보임 (13-14쪽)

○ 반면, **경유 차량은 사업용**이 대부분이므로, 차량용 경유 사용량은 **가격상승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것**으로 보임

* 휘발유 : '10.4분기 대비 '11.1분기 가격은 8.3% 상승, 일평균 소비량은 4.7% 감소
* 경유 : '10.4분기 대비 '11.1분기 가격은 9.7% 상승, 일평균 소비량은 11.0% 감소

□ 對일본 수출이 **전년동기비**(2010. 1분기 대비) **79.0% 증가** 및 **전기비**(2010. 4분기 대비) **27.2% 증가**하는 등 그 폭 큰 것이 눈에 띄는데, 이는 **3월에 발발한 대지진**으로 인한 **일본 석유정제시설의 가동 중단**이 주요인으로 보임 (9쪽)

○ 유종별로는 전기비, **난방용 등유 200.6% 증가, 발전용 벙커C유 186.8% 증가, 항공유 640.9% 증가**로, 이는 이례적인 상황

* 일본의 석유정제시설 **28개 중 6개의 가동이 중단**되었다가 **3개는 복구**되어, 3월말 현재 **약 14%의 석유정제능력이 상실**된 상황

□ 2011년 1분기는 설연휴로 인해 전기비 **조업일수(5일△)** 및 **소비일수(2일△)가 줄어들어,** 전기비 **수요(내수 2.5%△, 수출 4.5%△)** 및 **공급(생산 3.0%△, 수입 10.8%↑) 총 물량이 감소**하였으며, 이는 매 **1분기의 특징**

* 석유화학사의 나프타 수입량 증가로 수입은 10.8% 증가

○ 반면, 전년동기비 **수요(내수 3.1%↑, 수출 23.3%↑) 및 공급(생산 7.8%↑, 수입 0.1%↑) 총 물량이 증가** 한 것은 **국내외 경기활성화**가 주요인

* 2011년 1분기 국내총생산(GDP) : 전년동기비 4.2% 성장, 전기비 1.4%, 성장

○ **원유수입**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, 재고 및 석유제품의 수출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**전년동기비 13.3% 증가, 전기비 1.5% 증가**

* 원유수입 대상국 상위 6개국은 사우디, 쿠웨이트, 이라크, 카타르, 이란, 아랍에미리트로, 이들 국가들은 2010년 1년 동안에도 상위 6위를 차지하였으며, 1분기 원유수입물량의 78.5%를 차지

원유 수입부문

□ 원유수입 물량은 **전년동기비(2010년 1분기) 큰 폭**으로 **증가(13.3%↑)**하였고, **전기비(2010년 4분기) 소폭 증가(1.5%↑)**

○ **전년동기비** 원유수입 물량의 증가는 **석유제품의 내수(전년동기비 3.1%↑) 증가 보다는 수출(전년동기비 23.3%↑) 증가**가 주요인으로 보임

* 2011년 1분기 국내총생산(GDP) : 전년동기비 4.2% 성장, 전기비 1.4%, 성장 (한국은행 '11.4.27일 발표)
* 2011년 1분기 수출 : 석유제품 및 선박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동기비 30.4% 증가, 전기비 2.4% 증가 (지식경제부 수출입과 '11.4.1일 발표)

○ **전기비** 석유제품의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, **원유수입이 증가**한 것은 **원유재고의 증가가 주요인**으로 보임

* '11년 1분기의 원유수입 증가는 매 1분기마다의 특징은 아님

○ **1분기내 월별 원유수입 물량**은 1월 84,286천b, 2월 70,743천b, 3월 80,066천b로, **2월의 수입량이 가장 적은 이유**는 **조업일수 감소(5일△)**와 **소비일수 감소(2일△)** 때문이며, 이는 매 2월의 특징

□ **원유의 중동수입 비중**은 1월 85.1%, 2월 85.3%, 3월 81.1%로, **1분기 평균 83.8%** 이며, 2월 발발한 리비아 등의 **중동사태는 원유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**

< 우리나라의 원유수입 중동의존도 >

구분	11.1분기	10.4분기	10.1분기	10년 전체
중동의존도(%)	83.8	82.3	84.2	81.8

< 지역별 원유수입실적 : 물량 기준 >

(단위:천b)

구 분	11.1분기		10.4분기	10.1분기	전기비(%)	전년동기비(%)
	물량	비중(%)				
중 동	197,045	83.8	190,641	174,751	3.4	12.8
아 시 아	35,908	15.3	39,644	28,815	△9.4	24.6
아메리카	1,492	0.6	1,186	636	25.8	134.6
유 럽	650	0.3	0	0	-	-
아프리카	-	-	36	3,330	△100.0	△100.0
계	235,095	100.0	231,507	207,534	1.5	13.3

□ 1분기내 **원유수입 대상국 상위 1-6위에** 해당하는 국가들은 **사우디, 쿠웨이트, 이라크, 카타르, 이란, UAE**로 변동이 없으며, 이는 2010년 1년 동안 지속된 현상

○ 특히, **사우디는 1~3월 모두** 우리나라의 **원유수입국 1위**로(2위-6위 국가는 순위변동), **'91년 이후 최대 수입대상국 지위를 차지**

○ 이들 **6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유비중은 1월 80.7%, 2월 78.7%, 3월 76.1%**에 해당

< 국가별 원유수입실적 : 물량 기준 >

(단위:천b)

구 분	11.1분기		10.4분기	10.1분기	전기비(%)	전년동기비(%)
	물량	비중(%)				
사우디	68,996	29.3	73,303	65,668	△5.9	5.1
쿠웨이트	25,361	10.8	28,388	25,814	△10.7	△1.8
이라크	24,963	10.6	21,595	17,486	15.6	42.8
카타르	24,696	10.5	20,140	12,919	22.6	91.2
이란	22,807	9.7	14,905	18,358	53.0	24.2
UAE	17,777	7.6	23,336	27,136	△23.8	△34.5
인니	7,793	3.3	7,644	6,130	1.9	27.1
기타	42,702	18.2	42,196	34,023	1.2	25.5
계	235,095	100.0	231,507	207,534	1.5	13.3

* 기타 : 중동 중립지대 및 기타국가

석유제품 수요부문

□ **석유제품의 국내소비(내수)**는 2010년 이후 지속된 석유화학산업의 호황과 경기회복으로 **전년동기비 증가(3.1%↑)**하였으나, 2010년 4분기 이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**전기비 소비량은 감소(2.5%△)**

※ 국내소비(내수) : 최종 소비가 아닌, 정유사 공급기준

○ **산업부문의 전년동기비 소비량 증가**는 석유화학산업의 주원료인 **나프타(소비중 가장 큰 비중, 43.3%)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(전년동기비 9.3%↑, 전기비 3.8%↑)**한 것에 기인함

○ **수송부문**은 연말 여행수요 마감으로 인한 **1월의 소비량 감소**(1월 20,614천b, 전월비 9.9%△), 소비일수 감소(2일△) 등으로 인한 **2월의 소비량 감소**(20,155천b(전월비 2.4%△)로, **1분기 총소비량은 전기비 감소(62,814천b, 8.1%△)**

- 고유가 상황에도 불구하고, **수송부문(자동차·항공·선박 등)**의 **전년동기비는 1월, 2월, 3월, 모두 증가**하여 **1분기 총소비량은 전년동기비 증가(2.6%↑)**

< 수송부문 연료별 소비현황 >

(단위:천b, ( ) 천b/d)

구 분	11.1분기		10.4분기	10.1분기	전기비(%)	전년동기비(%)
	물량	비중(%)				
경유	24,186 (269)	38.5	27,559 (300)	23,806 (265)	△12.2 (△10.3)	1.6 (1.6)
휘발유	15,844 (176)	25.2	17,107 (186)	15,428 (171)	△7.4 (△5.3)	2.7 (2.7)
LPG	11,216 (125)	17.9	12,050 (131)	11,274 (125)	△6.9 (△4.9)	△0.5 (△0.5)
항공유	6,196 (69)	9.9	6,430 (70)	5,975 (66)	△3.6 (△1.5)	3.7 (3.7)
방카C유	4,963 (55)	7.9	4,832 (53)	4,428 (49)	2.7 (5.0)	12.1 (12.1)
계	62,814 (698)	100.0	68,382 (743)	61,214 (680)	△8.1 (△6.1)	2.6 (2.6)

* '계'에는 수송관련서비스업 409천b 포함

○ **가정상업부문** 소비량의 전년동기비(3.7%↑) 및 전기비(9.9%↑) **증가**는 **기온하락**에 따른 **난방유 사용량 증가**가 주요 원인

< 기온 현황 >

구 분	11.1분기	10.4분기	10.1분기	전기비	전년동기비
평균기온(℃)	-0.8	6.6	0.4	-7.4	-1.2

* 기상청 서울기준 분기별 평균기온

○ **발전부문 소비량의 전년동기비 감소(0.1%△) 및 전기비 증가(68.8%↑)**는 **석유류와 LNG 발전용 단가 상승률 차이**에 의한 영향으로 보임

* 전기비 석유류 발전단가 증가율이 작기 때문에 소비량이 증가

< 연료별 발전단가 >

(단위:원/kWh)

구분	11.1분기	10.4분기	10.1분기	전기비(%)	전년동기비(%)
석유류	186.38	179.84	162.50	3.6	14.7
LNG	112.09	104.96	105.44	6.8	6.3

*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

< 주요 부문별 소비현황 >

(단위:천b, ( ) 천b/d)

구 분	11.1분기		10.4분기	10.1분기	전기비(%)	전년동기비(%)
	물량	비중(%)				
산업	110,926 (1,233)	54.1	115,793 (1,259)	107,832 (1,198)	△4.2 (△2.1)	2.9 (2.9)
수송	62,814 (698)	30.6	68,382 (743)	61,214 (680)	△8.1 (△6.1)	2.6 (2.6)
가정.상업	19,236 (214)	9.4	17,497 (190)	18,546 (206)	9.9 (12.4)	3.7 (3.7)
발전	6,710 (75)	3.3	3,974 (43)	6,718 (75)	68.8 (72.6)	△0.1 (△0.1)
기타	5,277 (59)	2.6	4,498 (49)	4,524 (50)	17.3 (19.9)	16.6 (16.6)
계	204,963 (2,277)	100.0	210,144 (2,284)	198,834 (2,209)	△2.5 (△0.3)	3.1 (3.1)

* 기타 : 가스제조 및 공공기타

□ **유종별 소비량** 1~3위는 **나프타, 경유, LPG 순**으로 1월, 2월, 3월 뿐만 아니라, **2010년 전체 유종별 소비량 순위와도 동일**

○ 전년동기비 석유화학산업 호황으로 **나프타 소비량** 증가, 반도체 등 수출 증가로 **항공유 소비량** 증가, 설연휴로 **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** 증가, 평균기온 하락으로 난방유인 **등유 소비량** 증가

< 주요 유종별 소비현황 >

(단위:천b, ( ) 천b/d)

구 분	11.1분기		10.4분기	10.1분기	전기비 (%)	전년동기비 (%)
	물량	비중(%)				
나프타	88,697 (986)	43.3	85,425 (929)	81,126 (901)	3.8 (6.1)	9.3 (9.3)
경유	32,097 (357)	15.7	36,895 (401)	31,550 (351)	△13.0 (△11.1)	1.7 (1.7)
LPG	24,635 (274)	12.0	26,998 (293)	26,491 (294)	△8.8 (△6.7)	△7.0 (△7.0)
방카C유	18,189 (202)	8.9	15,492 (168)	19,015 (211)	17.4 (20.0)	△4.3 (△4.3)
휘발유	16,312 (181)	8.0	17,694 (192)	15,865 (176)	△7.8 (△5.8)	2.8 (2.8)
등유	10,781 (120)	5.3	10,539 (115)	10,234 (114)	2.3 (4.6)	5.3 (5.3)
항공유	7,145 (79)	3.5	7,616 (83)	6,763 (75)	△6.2 (△4.1)	5.6 (5.6)
기타	7,107 (79)	3.5	9,485 (103)	7,790 (87)	△25.1 (△23.4)	△8.8 (△8.8)
계	204,963 (2,277)	100.0	210,144 (2,284)	198,834 (2,209)	△2.5 (△0.3)	3.1 (3.1)

* 기타 : 아스팔트, 용제 등

□ **석유제품의 수출(국제벙커링 포함)**은 **전년동기비 증가(23.3%↑)**하였으나, **전기비 감소(4.5%△)**

○ 주요 수출국은 **중국, 일본, 싱가폴, 인도네시아, 홍콩(중국)** 이고, 동 국가들은 1월, 2월, 3월 모두 5위권 내에 들며, **중국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 지위 차지**

<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: 물량기준 >

(단위:천b)

구 분	11.1분기		10.4분기	10.1분기	전기비 (%)	전년동기비 (%)
	물량	비중(%)				
중국	20,161	22.4	23,394	17,339	△13.8	16.3
일본	14,977	16.6	11,778	8,369	27.2	79.0
싱가폴	12,812	14.2	12,980	6,782	△1.3	88.9
인도네시아	12,114	13.5	10,050	8,062	20.5	50.3
홍콩(중국)	6,606	7.3	5,674	4,168	16.4	58.5
미국	4,050	4.5	5,743	7,692	△29.5	△47.3
네덜란드	3,016	3.4	4,490	2,109	△32.8	43.0
기타	16,242	18.1	20,640	16,969	△21.3	△4.3
계	89,978	100.0	94,749	71,490	△5.0	25.9

* 국제벙커링 물량(12,461천b) 제외

< 주요 유종별 수출실적 : 물량기준 >

(단위:천b)

구 분	11.1분기		10.4분기	10.1분기	전기비 (%)	전년동기비 (%)
	물량	비중(%)				
경 유	34,937	38.8	36,144	26,369	△3.3	32.5
항공유	14,282	15.9	16,721	12,557	△14.6	13.7
휘발유	11,077	12.3	10,943	10,374	1.2	6.8
벙커C유	9,418	10.5	8,964	6,067	5.1	55.2
나프타	8,253	9.2	10,020	6,473	△17.6	27.5
아스팔트	3,893	4.3	4,040	4,601	△3.6	△15.4
등 유	3,152	3.5	2,788	1,035	13.1	204.5
기 타	4,965	5.5	5,129	4,014	△3.2	23.7
계	89,978	100.0	94,749	71,490	△5.0	25.9

* 국제벙커링 물량(12,461천b) 제외

□ 對일본 수출은 **전년동기비(79.0%↑) 및 전기비(27.2%↑)** 모두 **크게 증가** 하였는데, 3월 발발한 대지진으로 **일본의 석유정제시설 가동이 중단**된 것이 주요인으로 보임

○ **3월 11일 지진**으로 일본의 석유정제시설 **28개 중 3개의 가동이 중단**되어 전체 정제시설 중 **약 14%의 정제능력이 상실**된 상황

* 3월 11일 지진으로 28개 석유정제시설 중 6개의 가동이 중단되었고, 이는 전체 석유정제능력의 약 33% 상실(11일 기준)
* 3월 16일~21일 3개의 정제시설이 가동재개 결과, 약 14%의 정제능력 상실(21일 기준) (Facts社, Argus社)

○ 유종별로는 전기비, **난방용 등유 200.6% 증가, 발전용 벙커C유 186.8% 증가, 항공유 640.9% 증가**

< 對일본 유종별 수출실적 : 물량기준 >

(단위:천b)

구 분	11.1분기		10.4분기	10.1분기	전기비(%)	전년동기비(%)
	물량	비중(%)				
나프타	4,592	30.7	6,964	3,237	△34.1	41.9
등유	3,036	20.3	1,010	968	200.6	213.6
벙커C유	2,481	16.6	865	1,035	186.8	139.7
항공유	2,156	14.4	291	1,179	640.9	82.9
휘발유	1,202	8.0	1,354	650	△11.2	84.9
경유	1,061	7.1	637	977	66.6	8.6
아스팔트	226	1.5	215	289	5.1	△21.8
기타	223	1.5	442	34	△49.5	555.9
계	14,977	100.0	11,778	8,369	27.2	79.0

석유제품 공급부문

□ **석유제품의 생산**은 **전년동기비 증가(7.8%↑)**하였으나, **전기비 감소(3.0%△)**

○ 전년동기비 생산 증가는 경기회복의 영향이나, **전기비 생산감소**는 **국내소비 감소(2.5%△)**와 **수출 감소(4.5%△)**에 기인하며, 이는 **매 1분기의 특징**

< 주요 유종별 생산실적 : 물량기준 >

(단위:천b)

구 분	11.1분기		10.4분기	10.1분기	전기비(%)	전년동기비(%)
	물량	비중(%)				
경 유	67,623	27.9	70,798	60,878	△4.5	11.1
나프타	47,563	19.6	46,122	39,429	3.1	20.6
벙커C유	35,834	14.8	32,752	33,295	9.4	7.6
휘발유	28,205	11.6	29,825	27,604	△5.4	2.2
항공유	23,396	9.6	24,315	22,560	△3.8	3.7
등 유	14,286	5.9	14,611	11,976	△2.2	19.3
아스팔트	4,962	2.0	7,157	6,036	△30.7	△17.8
기 타	20,584	8.5	24,335	23,094	△15.4	△10.9
계	242,453	100.0	249,915	224,872	△3.0	7.8

* 기타 : LPG, 용제, 윤활유 등

□ **석유제품의 수입**은 **전년동기비**(0.1%↑) 및 **전기비**(10.8%↑) **증가**

○ **석유제품 수입의 60% 이상**을 **UAE, 인도, 카타르, 쿠웨이트, 사우디** 등 5개국에서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, **2010년 1년간 수입한 석유제품 전체의 65.3%**를 이들 5개국에서 수입

○ **사우디로부터의 수입**이 **전년동기비 감소(22.9%△)**하고, **UAE로부터의 수입**이 전년동기비 **큰 폭 증가(61.0%↑)**한 것이 특징

< 주요 국가별 수입실적 : 물량기준 >

(단위:천b)

구 분	11.1분기		10.4분기	10.1분기	전기비(%)	전년동기비(%)
	물량	비중(%)				
UAE	14,385	19.6	10,898	8,934	32.0	61.0
인도	9,842	13.4	9,316	10,524	5.6	△6.5
카타르	8,108	11.0	6,386	8,054	27.0	0.7
쿠웨이트	7,682	10.4	8,191	6,815	△6.2	12.7
사우디	6,952	9.5	12,591	9,020	△44.8	△22.9
말련	5,680	7.7	3,674	6,535	54.6	△13.1
싱가폴	3,113	4.2	2,124	2,147	46.6	45.0
기타	17,801	24.2	13,197	21,435	34.9	△17.0
계	73,563	100.0	66,376	73,464	10.8	0.1

○ **석유제품은 석유화학산업의 주원료인 나프타가 대부분**이며 (64.8%), 뒤를 이어 **LPG(25.5%), 벙커C유(9.6%) 순으로 수입**

< 주요 유종별 수입실적 : 물량기준 >

(단위:천b)

구 분	11.1분기		10.4분기	10.1분기	전기비(%)	전년동기비(%)
	물량	비중(%)				
나프타	47,659	64.8	44,428	48,684	7.3	△2.1
L P G	18,769	25.5	19,732	17,549	△4.9	7.0
벙커C유	7,041	9.6	1,817	7,126	287.5	△1.2
등 유	51	0.1	235	76	△78.3	△32.9
경 유	28	0.0	155	10	△81.9	180.0
용 제	10	0.0	7	17	42.9	△41.2
항공유	6	0.0	2	1	200.0	500.0
계	73,563	100.0	66,376	73,464	10.8	0.1

참고1 2011년 1분기 제품별 수급 총괄

(단위: 천b, %)

구 분		11.1분기		10.4분기	10.1분기	전기비	전년동기비
		물량	(백만$)				
휘발유	생 산	28,205		29,825	27,604	△5.4	2.2
	수 입						
	내 수	16,312		17,695	15,865	△7.8	2.8
	수 출	11,077	(1,248)	10,943	10,374	1.2	6.8
등유	생 산	14,286		14,611	11,976	△2.2	19.3
	수 입	51	(7)	235	76	△78.3	△32.9
	내 수	10,780		10,539	10,234	2.3	5.3
	수 출	3,152	(385)	2,788	1,035	13.1	204.5
경유	생 산	67,623		70,798	60,878	△4.5	11.1
	수 입	28	(2)	155	10	△81.9	180.0
	내 수	32,097		36,895	31,551	△13.0	1.7
	수 출	34,937	(4,163)	36,144	26,369	△3.3	32.5
벙커C유	생 산	35,834		32,752	33,295	9.4	7.6
	수 입	7,041	(638)	1,817	7,126	287.5	△1.2
	내 수	18,190		15,492	19,016	17.4	△4.3
	수 출	9,418	(885)	8,964	6,067	5.1	55.2
나프타	생 산	47,563		46,122	39,429	3.1	20.6
	수 입	47,659	(4,648)	44,428	48,684	7.3	△2.1
	내 수	88,697		85,426	81,126	3.8	9.3
	수 출	8,253	(840)	10,020	6,473	△17.6	27.5
LPG	생 산	4,687		7,863	8,568	△40.4	△45.3
	수 입	18,769	(1,402)	19,732	17,549	△4.9	7.0
	내 수	24,635		26,998	26,491	△8.8	△7.0
	수 출	766	(55)	41	503	1,768.3	52.3
기타 제품	생 산	44,255		47,944	43,122	△7.7	2.6
	수 입	15	(2)	9	19	66.7	△21.1
	내 수	14,252		17,099	14,552	△16.7	△2.1
	수 출	22,374	(2,586)	25,850	20,669	△13.4	8.2
합계	**생 산**	242,453		249,915	224,872	△3.0	7.8
	수 입	73,563	(6,699)	66,376	73,464	10.8	0.1
	내 수	204,963		210,144	198,835	△2.5	3.1
	수 출	89,977	(10,162)	94,750	71,490	△5.0	25.9

* 기타 : 항공유, 아스팔트, B-A, B-B, 윤활기유, 용제, 기타제품
* 수출 : 국제벙커링 물량(12,461천b) 제외

참고2 국내유가와 휘발유·경유의 소비량(주유소 판매량) 변화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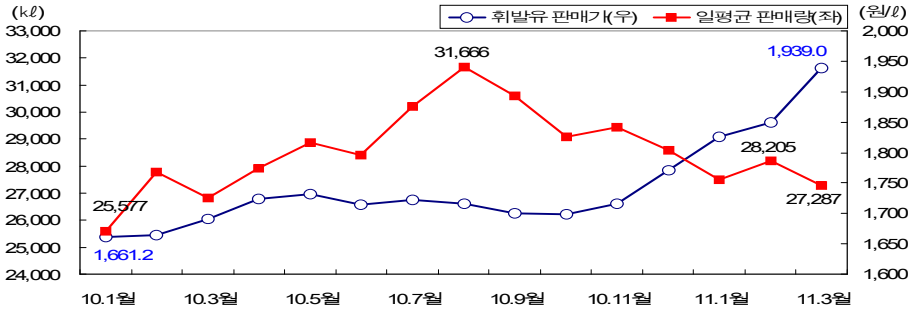
【 휘발유 】

○ 2010년말 이후, 국내 휘발유 가격의 상승폭이 커지고 **자동차 5부제의 이행·강화(2월)**에 따라, 금년 **1분기 휘발유 소비량(주유소 판매량)이 감소 추세**를 보임

○ 전반적으로 **자가용(휘발유) 사용**은 **고유가** 및 **5부제 시행에 영향**을 받는 것으로 보임

* 2월의 소비량 증가는 설연휴 차량운행 증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

< 국내 휘발유가격 및 주유소 판매량 추이(10.1~11.3월) >



구 분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10년	판매량(천kl)	25.6	27.8	26.8	27.9	28.9	28.4	30.2	31.7	30.6	29.1	29.4	28.6
	전월비(%)	△7.9	8.6	△3.4	4.1	3.4	△1.5	6.3	4.8	△3.3	△5.0	1.3	△3.0
	판매가(원/L)	1,661	1,664	1,691	1,725	1,732	1,715	1,722	1,716	1,700	1,700	1,716	1,771
	전월비(%)	0.9	0.1	1.7	2.0	0.5	△1.0	0.4	△0.4	△0.9	△0.0	1.0	3.2
11년	판매량(천kl)	27.5	28.2	27.3									
	전월비(%)	△3.8	2.6	△3.3									
	판매가(원/L)	1,825	1,850	1,939									
	전월비(%)	3.1	1.4	4.8		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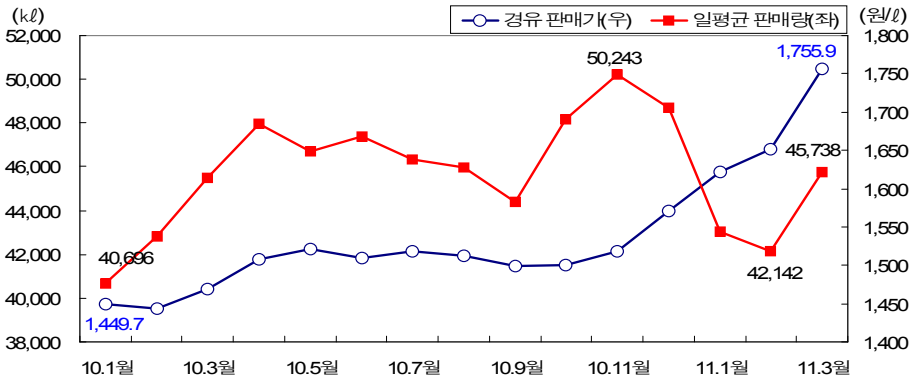
* '10.1분기 대비 '11.1분기 가격 12.0% 상승, 일판매량은 3.0% 상승
* '10.4분기 대비 '11.1분기 가격은 8.3% 상승, 일판매량은 4.7% 감소
* '11.2월 대비 '11.3월 가격은 4.8% 상승, 일판매량은 3.3% 감소

【 경유 】

○ 2010년말 이후, **국내 경유 가격의 상승폭이 커졌음에도, 소비량(주유소 판매량)의 증감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**

○ **경유차량**은 가정용(자가용)이 아닌 **상업용 차량이 대부분**이므로 **유가로 인한 영향을 상대적**으로 덜 받음

< 국내 경유가격 및 주유소 판매량 추이(10.1~11.3월) >



구 분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10년	판매량(천kl)	40.7	42.8	45.5	47.9	46.7	47.4	46.3	46.0	44.4	48.2	50.2	48.7
	전월비(%)	△15.0	5.3	6.2	5.4	△2.6	1.5	△2.2	△0.8	△3.4	8.5	4.3	△3.1
	판매가(원/L)	1,450	1,443	1,469	1,507	1,522	1,509	1,518	1,513	1,499	1,500	1,518	1,570
	전월비(%)	0.6	△0.5	1.8	2.6	1.0	△0.9	0.6	△0.4	△0.9	0.1	1.2	3.4
11년	판매량(천kl)	43.0	42.1	45.7									
	전월비(%)	△11.6	△2.1	8.5									
	판매가(원/L)	1,622	1,652	1,756									
	전월비(%)	3.3	1.8	6.3									

* '10.1분기 대비 '11.1분기 가격 15.3% 상승, 일판매량은 1.5% 상승
* '10.4분기 대비 '11.1분기 가격은 9.7% 상승, 일판매량은 11.0% 감소
* '11.2월 대비 '11.3월 가격은 6.3% 상승, 일판매량은 8.5% 상승